

박근혜·이재용 정조준... “강제수사·靑압수수색 뇌물죄 규명”

박영수 특검팀 본격 수사 착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검팀의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21일 현판식 이전에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 고리인 뇌물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삼성그룹 고위직 인사를 잇따라 불러 사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기간이 빠듯한데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수사를 맡게된 특검팀의 고뇌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최근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조사한 데 이어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만나 조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박 사장과 장 차장은 최순실(60·구속기소) 씨에 대한 지원 업무의 실무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자금을 뇌물로 볼지 규명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다수의 재계 인사를 사전 조사 형식으로 제삼의 장소로 불러 의혹에 관해 파악하는 등 본격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10명 이하의 재계 인사를 사전 접촉 형식으로 검사 입회하에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대상자의 신분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전조사 형식으로 특검이 조사한 이들은 대체로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재계 인사를 전격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사장과 장 차장은 검찰 수사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삼성은 작년 8월 최 씨 측에 220억원대 특혜지원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가 배우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최대 후원기업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핵심 관련자를 정면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출범 초기부터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원칙을 천명

삼성 박상진·장충기 사장 등

재계 인사 수명 이미 참고인 조사

삼성 대가성 지원 입증에 관건

박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가피

한 박 특검은 강제 모금 의혹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문화 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내세울 것”이라며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삼성, SK, 롯데 등이 공여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특검은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를 특혜지원했다는 의혹 등을 산 삼성그룹을 수사해 검찰 수사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 조사의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제공자인 기업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특검의 ‘장’은 자연스럽게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법리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압수수색을 사실상 예고했다.

박 대통령 직접조사는 뇌물 혐의 적용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을 규명하고 청와대를 둘러거린 최 씨와 측근의 비리 및 국정 개입 혐의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해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이며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 조사는 시기적으로는 특검 수사의 후반부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대통령 직접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검찰이 거의 손대지 못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및 비리 방조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 씨의 국정개입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함께 규명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위증모의 의혹 풀릴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왼쪽)와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김성태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방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 이날 간사 회의는 새누리당 특위 위원인 이완영 이만희 의원과 청문회 중인 간의 ‘위증 모의’ 의혹과 관련, 규명 시점을 정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뻔뻔한 최순실 참으로 가증스럽다”

첫 재판 혐의 부인 비난 쇄도... “박대통령 연명시키려는 의도”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한 데 대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김영광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20일 “(재판에서)최순실은 참으로 가증스럽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이런 식으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최순실은 가장 큰 부역자이자 가장 큰 범죄자인데 재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 농단, 민주질서 파괴의 장본인인 최순실씨의 법정 진술을 보니 기가 차다”면서 “처음 독일서 귀국할 때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보이더니 이제 감옥 갈 걱정엔 드는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임하는 태도나 최순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결국 시간을 끌어 박 대통령을 연명시키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철저한 재판도 촉구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런 문제를 잘 체크

해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불식되도록, 또 엄벌에 처해지도록 특검에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최씨는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장본인”이라며 “법원은 추상같이 엄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근본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최씨는 대통령 딸, 대통령은 최씨 딸로 바쁘다”며 “처음 출석한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최씨도 기가 막히지만, 그를 ‘키친 캐비닛’이며 ‘국정의 1% 미만’이었다며 오리발을 내민 대통령도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최씨는 처음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는 ‘죽을 죄를 지었다’더니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부인하느냐”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모든 사실이 물적 증거와 핵심 증인들의 증언으로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내일 연다

국회·박대통령 대리인 만나 인용-기각 주장·쟁점 정리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격 변론 전에 이뤄지는 일종의 예행 절차로 보면 된다. 사건이 워낙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현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형소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측은 “변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리인이 와서 준비한다”며 “(당사자 소환과 관련해) 특별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준비절차기일을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 방식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의 경우에 준해 이뤄진다.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재판관’들이 진행을 지휘하며 양측에 발언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행사한다. 헌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대로 (공개)한다”며 “당사자들의 비공개 신청 등이 제기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지정한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검찰 및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한 발언을 심판에서 참고하거나 증거로 활용할지와 관련해 “필요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문서 제출 요구,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 등에 따라 필요하다면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트렉스타 세계랭킹 12위(아시아 1위) 등극
(COMPASS지 공식발표 기준)

손없이 신고뭉는다!

핸즈프리 - 손없이 자유롭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신 개념 워킹화





로터를 뒤로 당기면 신발끈이 자동으로 묶입니다.



하이퍼그립 테크놀러지로 어떤 환경에서 미끄러짐없이!



NestFit 테크놀러지를 통한 맨발걸이 편한 착화감!

트렉스타 매장 개설문의
부산본사 051 309 3672 (박근우 과장)
서울지사 070 8169 3122 (정광현 차장)

www.treksta.co.kr